

쓰레기 밀수출국 오명 씻기 위한 영국의 노력

영국 재무성 인프라도입사업단장 벤 프린씨 인터뷰



인터뷰 대상자 약력

- 이름: Ben Pryn
- 직책: 영국재무성 사업단장 (Project Director at HM Treasury)
- 부서: 인프라도입사업국 (Infrastructure Delivery Office)
- 소속기관: Infrastructure UK (영국환경부 DEFRA와 재무부 HM Treasury 합작 인프라도입사업 총괄기관)
- 경력: 1996~1999 Assistant Director at PwC, 2007~2010 Programme Coordinator at DEFRA, 2010~현재 Project Director at HM Treasury

Q : 영국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쓰레기 처리 관련 현황은 어떠한가요?

A : 흔히들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문화코드 개념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진사회, 높은 국민의식 수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산업선진국이라는 수식어들은 영국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되곤 하지요. 그러한 영국이 유독 명함을 못 내미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도 몇 년 되지 않았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길거리 휴지통이나 집안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아주 기본적인 분리수거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수거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요. 오히려 한국을 방문하는 영국인들이 한국의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실태를 목격하고는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Q : 예전에 영국이 쓰레기를 밀수출하려다 적발이 되어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A : 네, 맞습니다. 영국은 EU매립법안(EU Landfill Directive)이 지시한 대로 2020년까지 매립 쓰레기량을 200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활용이 생활화 되어있지 않아 쓰레기 매립량이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은 탄소배출의무 감축 목표달성에도 반하므로 매립만 꾸준히 하는 것이죠. 2000년 업계 전반에 걸친 환경부 심층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한해 생산되는 일반쓰레기는 2,220만 톤이나 되는데 이중 무려 90% 이상이 매립지로 직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몰래 쓰레기를 밀수출하다 적발되어 수차레나 곤욕을 치른 적이 있지요.

2005년 3월, 영국업체들이 가정용 쓰레기를 재활용 폐지로 둔갑시켜 중국으로 수출하려다 로테르담 항구에 서 적발돼 망신을 당했는데 약 1,000톤 규모였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중국 현지에서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영국산 쓰레기가 적발되는가 하면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09년 브라질 항구 세 곳에서 1,400톤 분량의 영국산 쓰레기 컨테이너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콘돔, 병원 주사기 혈액주머니 등 유독성 폐기물까지 무차별 혼합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죠.

2009년 브라질 항구에서 적발된 영국산 쓰레기 밀수출 컨테이너



출처: 가디언지

Q : 신사의 나라 영국과는 너무 상반되는 이야기이네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A :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당황한 영국정부는 부랴부랴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 영국 내 폐기물 매립 포화상태에서 재활용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는 위기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영국의 쓰레기처리 시스템이 과점기업에게 발목 잡혀있기 때문이지요. 이와 함께 영국은 폐기물자원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하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방식이 설자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이권 보장과 함께 신기술 도입의 근거로 삼을 관련법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수십여 년 간 영국의 폐기물관련법은 결국 한계점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순한 매립만 해대는 방식을 눈감아줄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래도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 그렇다면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영국의 법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1947년 The Town and County Act 법안을 통해 형성된 영국의 초기 폐기물 처리 산업은 폐기물을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버리는 방식에 불과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1987년 UN의 Bruntland 보고서 발표 이후 지속가능성이 큰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가정용 쓰레기의 상당부분을 재활용하거나 분해가능쓰레기를 비료로 활용하는 등 최근 5년간 2000년 대비 35%의 재활용비율 향상을 가져오긴 했으나 아직도 톤당 63파운드의 매립세 징수 외에는 뚜렷한 매립감축정책이 없습니다.

interview

Q : 앞에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업체의 과점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어떤 문제인가요?

A : 영국의 쓰레기 처리는 몇 개 기업이 맡아서 하고 있는 과점상황입니다. 유럽최대의 폐기물수거 처리 전문기업인 프랑스계 비올리아(Veolia)와 같은 소수의 다국적기업이 영국의 쓰레기처리를 과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역내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을 돈을 주고 이들 회사에 넘기는데 매립세의 대부분이 상쇄되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은 매립을 줄일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열분해와 같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기술을 도입할 이유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영향력으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가늠케 하는 기술들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시장진출을 목표로 지원하던 한국 폐기물자원화기술 업체 또한 이 때문에 결국 EU역외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적이 있었죠.

Q : 그렇다면, 이는 영국의 쓰레기처리 시스템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A : 네,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폐기물처리는 전문처리업체들에게 돈이 되는 단순 매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매립은 매립지의 공간적 제한성이 있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데다 EU매립법안 목표달성을 위해 매립지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한계점을 극복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영국산 쓰레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알선하는 쓰레기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단순매립이 쓰레기의 재활용보다 더 돈이 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영국은 결국 2020년까지 2000년 매립 수준의 45%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Q : 최근 영국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움직임은 어떠합니까?

A :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영국정부는 폐기물시장 구조의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시장개입을 하지 않는 영국정부의 전통적인 입장도 꺾여버린 쓰레기 문제 앞에서는 무언가 변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2010년 6월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간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폐기물인프라도입사업이 재무부 주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서 업계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고 강경태세로 급변하였죠. 영국정부는 매립세를 대폭 인상시키는 중입니다. 2011년 현재 톤당 63파운드의 매립세는 내년이면 71.75파운드, 2015년에는 무려 98.23파운드까지 인상되는가 하면 매립 승인량 초과 시 톤당 150파운드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런 세금정책이 강력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또한 민간개발사업에

영국의 매립비용 인상계획표

대한 정부지원금제도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가 폐지됩니

다.폐기물 처리 관련 정

부지원금이 없어진다면 업

체들은 대안으로 폐기물자원화를 통해 수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올리아 등 영국폐기물처리시장을 좌지우지해오던 전문처리업체에게는 나쁜 소식인데요, 매립세 인상폭이 커서 수익성이 저하되고, 매립승인량 초과 시 톤당 150파운드나 내야 하는데 이미 매립가능량은 포화상태라 매립승인량이 날로 축소되는 추세에 정부지원금까지 끊기면서 매립업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달갑지 않은 것이 당연하겠죠. 2015년에는 쓰레기 매립 1톤당 매립비용과 매립승인량 초과비용을 합산한 248.23 파운드나 내는 셈인데요, 현재 63파운드와 비교하면 사업비용이 무려 4배나 증가하는 것이지요.

Q : 이런 정부정책에 따른 변화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기업들에게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 거대전문처리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대안기술 확보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기업중 하나는 영국 체셔지역에 MBT(기계생물처리공정)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처리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중 유기성분은 퇴비로 재활용하고 무기성분은 고형연료로 재생산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방식이며 연간 최대 25만 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팀은 작년에만 6억 4천만 파운드의 계약을 맨체스터 지역의 폐기물 처리사업 지원에 배정했는데 이 또한 MBT 방식 플랜트 건립용도였습니다. 현행 매립방식과 비교해보았을 때 해당 지역주민들은 MBT처리로 주당 1파운드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도입하지 않을 경우는 2015년에 주당 2파운드의 추가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MBT 외에도 페타이어 재활용, 폐식용유 바이오디젤화, 일반쓰레기 열분해와 같은 폐기물자원화기술이 시장진입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영국시장에 속속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에서 만큼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는 영국이 이제 정부차원에서 팔을 걷고 나서 새로운 신기술 적극 도입하고 있지요. 이를 기회로 우수한 기술을 가진 한국기업들이 녹색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막 허물어진 영국의 시장진입장벽을 뛰어넘고 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